

# Butadiene 가격강세 지속된다!

## 합성고무 및 ABS 강세로 ... 신증설 적어 아시아 공급타이트

2003년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했던 부타디엔(Butadiene) 가격이 2004년 들어 Down Stream의 가격강세로 FOB Korea 톤당 800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타디엔 무역상은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부타디엔이 2003년 중국의 수요증가로 톤당 600달러 이상에 거래되는 강세를 유지해왔으며, 2004년부터 Down Stream인 SBR(Styrene Butadiene Rubber) 및 BR(Butadiene Rubber) 가격강세로 1월 이후 재상승 기조"라고 밝혔다.

부타디엔은 1월 Olefin 계열인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 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으나 1월 말부터 FOB 600달러 중반으로 상승한 이후 2월 말 톤당 700달러가 넘게 거래됐다.

부타디엔의 대표적인 Down Stream인 SBR 수출가격(통관기준)은 1월 톤당 956달러, 2월 1017달러, 3월 1040달러이며, BR 등 합성고무 가격이 2004년 들어 강세를 보여 부타디엔이 2월부터 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구매에 나서지 않았던 중국이 3월부터 구매에 나서면서 ABS가 4월 CFR CMP 1150달러까지 폭등해 부타디엔 가격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타디엔 무역상은 Down Stream 수요 및 가격강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 최소 2-3년 동안 부타디엔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특히 5월부터 일본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와 국내 현대석유화학 제1단지 및 여천NCC의 정기보수기간에 이르면 현재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부타디엔은 2004-2005년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일부 플랜트들의 증설과 신규 건설이 있을 예정이지만 수요 증가에 크게 못 미쳐 수급타이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Down Stream 경기가 뒷받침된다면 현재 강세가 꺾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은 Spot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로 Monomer의 특성상 부타디엔과 마찬가지로 5월에 공급이 다소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틸렌은 아시아의 Spot 시장에서 최종 거래된 가격이 FOB 톤당 750달러이나 현재 시황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프로필렌은 4월 거래된 물량이 FOB 600달러 후반대로 5월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700달러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4월 가격이 다소 하락했던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중국의 합성수지 수요가 늘어나는 4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5월에 접어들어야 정확한 시장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4/16>